

國際 로보트 · 自動化 기기전

5월8~12일 慶南 昌原工團서 열려

상공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작 기계공업협회와 창원기계공업 단지가 주관하는 1991년도 국제 로보트 및 자동화 기기전이 5월8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창원시 창원공단 전시장에서 열린다.

국내의 로보트 및 자동화 기기류 생산업체와 공작기계 관련업체들의 산업용 로보트 생산자동화설비, 공정자동화기기, 설계자동화기기, 계측자동화장치, 자동창고시스템, 자동공작 기계류, 기타 자동화관련기기 및 부품이 전시된다.

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 자동화 추세에 따라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산업용 로보트 및 자동화기기, 장치류의 비교 전시를 통하여 국산품 개발과 국제간의 기술 교류촉진, 정보교환, 국제경쟁력 배양 등으로 한국의 로보트 산업 및 자동화 기기의 균형발전과 무역증진을 위해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산업기기의 혈액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속가공유를 출품하는 한국셀석유(주)를 비롯 자동선반분야의 대우중공업(주), 금단(주), 전동공구분야의 계양전기(주), 베어링 분야의 한국특수베어링, 연마기분야의 금호기계제작소, 한국 Fuji 기계(주), 성일기계 그리고 다양한 산업용

컴퓨터 및 자동화 로보트회사 가 참여한다.

光磁氣 디스크 開發

金星社, 기존용량 6배

金星社(대표 李憲祖)는 8일 국내외 어떤 광디스크구동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광자기 디스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88년부터 20억원을 투입, 3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

5.25인치로 기존 디스크보다 무려 6백배나 기억용량이 크며 A4 용지 30만장을 수록할 수 있어 차세대 보조기억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.

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 약 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광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.

현재 광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는 日本 소니社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어느 드라이브에나 쓸 수 있는 디스크의 호환성이 부족, 보급에 걸림돌이 됐다.

高速 1메가S램 開發성공

三星電子, 20나노초급 슈퍼컴용

三星電子가 4월30일 고속 1메가S램 개발에 성공, 시제품생산에 들어갔다.

S램은 정보를 기억시키거나 정보를 꺼내 읽을 수 있는 기억소자의 일종으로 D램과 달리 전기를 재충전해 주지 않아도 기억된 정보가 남아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.

이번에 개발된 1메가S램은 20나노초(1나노초=10억분의 1초)의 단독속도에다 0.7미크론급의 디자인룰로 구성돼 주로 슈퍼컴퓨터나 미니컴퓨터를 비롯 △통신기기 △의료기기 △그래픽시스템등 대용량 고성능 시스템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

다.

三星電子가 지난 88년 11월 일본에 이어 저속 1메가S램을 개발한 다음 지난해 4월부터 器興연구소 林亨圭박사를 중심으로 고속 1메가S램개발에 착수, 만 1년만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.

고속 1메가S램의 경우 세계 시장규모는 올해 7천만달러, 92년 1억3천만달러, 93년 2억9천만달러로 급신장할 전망이다.

三星電子는 이번 개발제품을 오는 7월부터 샘플출하, 본격생산에 들어가 앞으로 4년간 약 8천만달러 이상 판매할 계획이다.